

교회소식

*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 2012년 교회표어: 그 한사람, 그 예배자 (요한복음 4:24)

1 어버이 주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2 쿠키 나눔: 밀알 장애우들이 만든 쿠키 시식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주부터 도네이션 받습니다.

3 총회: 해외 한인 장로회 제37차 총회가 5월 22~24일 열립니다. (미국 시애틀 타코마, 새생명 교회)

4 감사: 오늘 식사 준비한 북한 공동체와 4남녀 선교회를 섬겨주신 1, 2, 3여 선교회에 감사드립니다.

5 예배: 각 공동체 예배를 최선을 다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6 모임: 2여 선교회 모임이 오는 18일(금) 오후 7시30분에 있습니다. (이태한 목사 가정)

7 유아세례: 김서진 (부: 김용찬, 모: 박은지) 세례증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8 새벽기도회: 매주 금요일 새벽 5시 50분에 교회 1층 Chapel 실에서 있습니다.

9 월례회: 2남, 4여 선교회 월례회가 1부 예배 후에 유아부실, 아동부실에서 각각 있습니다.

교역자소식

이태한 목사: 총회 참석차 출국합니다.

갈보리
교회가
돕는
선교지



루마니아: 김유정선교사
(집시사역)

중국: 김강한목사
(탈북자사역)

바누아투: 삼마교회 및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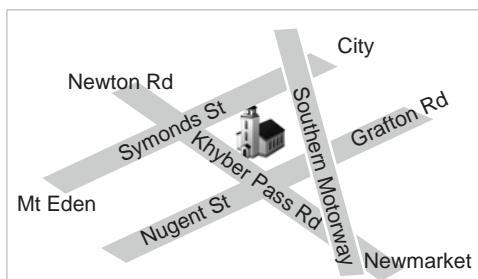


밀알장애인 봉사

예배시간 안내

예 배	시 간	장 소
주일1부예배	주일 PM 1:00	본당
주일2부예배	주일 PM 3:00	본당
수요예배	수요일 PM 7:30	본당
새벽기도	금요일 AM 5:50	Chapel
아동부	주일 PM 1:00	Chapel
종고등부	주일 PM 1:00	별관

오시는 길



2012년 5월 13일

어버이 주일

14권 20호

교회창립 1999/07/14



2012 그 날사람 그 예배자 (요4:24)

그리운 어머니 - 이태한 목사

어머니,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뵈온 지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삼 년이 30년처럼 다가온은 뵙지 못한 안타까움이 시간을 멈춘 까닭인가요? 그동안 잘 계시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말씀하시던 막내 잘 지내고 있습니다. 4년 전 수술 후유증으로 치매가 오셨다는 누이의 전갈을 받고 부리나케 당신을 찾았을 때 손자는 이따금 알아보아도 아들만큼은 또렷이 아는 듯 손을 잡고 놓을 줄 모르셨지요. 누이들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치매 환자의 전형적인 일상인 알 수 없는 말씀을 혼자서 하시거나 하루에도 몇 번씩 자꾸만 장롱 속 옷가지들을 꺼내 머리에 이고 나가자 하여 누이들이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었는데 막내가 오니 그러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아마도 처음 뉴질랜드 간다고 말씀드릴 때 자식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못하게 막은 못난 부모라는 말을 듣지 않으시려고 대놓고 가지 말라고 말씀은 못하신 채 '가지 말고 나랑 같이 살면 안 되나?' 지나가는 말씀인 양 얼버무리던 손길을 뒤로하고 떠나온 막내아들을 못 보고 가실 줄 알았는데 찾아온 그게 고마워 잠시라도 정신 줄을 잡으려는 마지막 안간힘이였나 봅니다.

며칠 함께 있지 못하고 다시 이곳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드리니 누이의 아파트 정문까지 따라오셔서 못난 자식 얼굴에 흥안을 비비며 하신 말씀이 귀에 생생합니다.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교회 잘 돌보고 아이들하고 잘 살아라." 하시던 말씀 말입니다. 어쩌면 그렇게도 뚜렷이 전혀 환자가 아닌 정상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 특별히 어머니에게 간섭하신 은혜의 순간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에게서 들은 생전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 후, 또 한 번 쓰러지고 이젠 병상에 누우셨지요? 며느리와 함께 다시 찾았습니다. 아무래도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말입니다. 눈인사로만 반길 뿐 손을 내밀기는커녕 말씀도 못하시는 반 주검의 모습에 아들의 마음은 통곡이었습니다. 큰절을 올리는 며느리와 아들의 인사는 당신에게 올리는 생전의 마지막 절이었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어머님께서 그렇게 소원하시던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사역이 끝나지 않아서 여기서 머물며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 끝내면 곧 돌아가 어머님을 뵙겠습니다. 아들이 여행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로 응원해주세요. 사무치는 그리움이 진하게 묻어나오는 어버이 주일에 막내가 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갈보리교회

담임목사: 이태한
St. David's Presbyterian Church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PO Box 8298 Symonds Street Auckland 1150
Ph: 09 - 369-5077 Ph: 09-475-6312 www.calvary.org.nz

주일 1부 예배

오후 1시 전주	인도: 이태한 목사 반주자
예배로 부름	미가 4:2
개회송	인도자
참회의 기도	찬양대
※ 찬송	다함께
※ 성시교도	98. 어버이 주일
※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송	다함께
대표기도	579장
교회학교	다함께
성경봉독	신명기 5:16, 에베소서 6:1-3
찬양대찬양	인도자
설교	나무십자가찬양대
찬송	자녀들아 주 안에서
현금기도	이태한 목사
※ 교회소식	다함께
※ 응답송	559장
축도	인도자
※ 응답송	살아 계신 주(1,3절)
축도	다함께
※ 응답송	이태한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은 들어오실 때 현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5월 교회일지

- 선교 수요일:
5월 2일 (수)
- 어린이 주일:
5월 6일 (주일)
- 어버이 주일:
5월 13일 (주일)
- 성령감임 주일:
5월 27일 (주일)

◎ 5월 예배봉사자

- 예배안내 :
고성일
- 새신자 안내:
심경순/김광자
- 주차안내:
양봉욱/민광호
- 주방봉사
한상순/김윤숙/장태옥/
원미경/박제란

◎ 기도순서

- 이번 주 수요기도: 남영수 집사
- 이번 주 애찬기도: 장연식 집사
- 다음 주일 1부: 박병민 집사
- 다음 주일 2부: 조온유 청년
- 5월 23일 수요기도: 김현주 집사
- 5월 23일 애찬기도: 이옥화 집사
- 5월 27일 1부: 이동술 집사
- 5월 27일 2부: 김정민 집사

금주의 기도제목

1. 국내: 영적으로 쇠퇴해가는 뉴질랜드 땅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이곳에 부르심을 입은 한인교회들이 주안에서 더욱 강건해지고 이 땅에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뉴질랜드가 남태평양의 여러 작은 나라들을 위한 경제, 기술, 교육 등에 많은 도움을 주도록.
2. 교회: 각 공동체 모임이 활발하고 인도자들과 공동체장들에게 지혜와 명철이 더하여 은혜롭고 풍성한 예배가 되도록, 각 선교회 임원들이 기도로 선교회를 이끌며 서로서로 섬기는 선교회가 되도록, 성전 건물 구입에 대한 계속된 관심을 두고 기도하도록. 삶의 어려움으로 마음이 상한 지체들에게 성령님의 위로와 풍성하도록.
3. 국외: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북한 주민들의 목숨을 건 탈출이 계속되고 있는데 탈북자들과 그들을 돋는 자들이 안전하도록, 또 한 중국정부가 탈북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정착을 제도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그리고 한국 정부와 교회가 지혜롭게 그들을 돋도록.

어버이날의 유래

지금부터 약 100여 년 전 미국 버지니아 주 웨스터 마을에 “안나 자이비스”란 소녀가 어머니와 단란하게 살았었는데, 불행하게도 어느 날 사랑하는 어머니를 여의게 되었다. 소녀는 어머니의 장례를 엄숙히 치르고 그 산소 주위에 어머니가 평소 좋아하시던 카네이션 꽃을 심었다. 그리고 항상 어머니 생전에 잘 모시지 못한 것을 후회하였다. 소녀는 어느 모임에 참석하면서 흰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나갔었다. 보는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 소녀는 대답하기를 “어머님이 그리워 어머니 산소에 있는 카네이션과 똑같은 꽃을 달고 나왔다.”라고 말하였다. 안나는 그 후 어머니를 잘 모시자는 운동을 벌여 1904년에 시애틀에서 어머니날 행사가 처음 개최되었다. 그리하여 이 날에는 어머님이 살아계신 분은 붉은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드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분은 자기 가슴에 흰 카네이션을 달게 되었던 것이다. 그 후 미국에서는 1913년 이래 매년 5월 둘째 일요일을 어머니 날로 정하였고, 점차 전 세계적으로 관습화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6년에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정하였으며, 그 뒤 1972년에 명칭을 어버이날로 바꾸어 국가적인 행사를 삼고 있다. 부모에 대한 효성은 서양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욱 돋보였었다. 우리 조상들은 부모님에 대한 효성을 모든 행동의 근본으로 삼았고, 부모님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해내었었다. 부모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추우나 더우나 모든 고통을 무릅쓰고 우리를 길러 주시고 또 항상 걱정을 하신다. 그러나 자식 된 우리들은 이러한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효도란 어떻게 하는 것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드리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께 걱정 끼쳐 드리지 않고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다. “어버이 살아 신 제 섬기기란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닮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 뿐인가 하노라.” 이 시조는 조선시대 정철 선생께서 지으신 것으로써 어버이, 즉 부모님 생전에 효도를 다해야지, 돌아가신 다음에 애달프다고 후회해야 소용없으니 살아계신 동안에 잘 섬기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이다. 어버이를 가까이 모시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부모님을 위로해 드리고 효도하는 데 온갖 정성을 기울려 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